



김형수 / 정회원, CDS 건축사사무소  
by Kim, Hyung-soo, KIRA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원 공학박사
- 건축시공기술사 / PMP
-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
- 대한건축사협회 행정위원장

## 아버지의 꿈

### Father's Desire

필자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있다. 이 아들의 장래희망은 건축사다. 그림도 곧 잘 그리고 또 아버지가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아 와서인지,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는 건축사가 자신의 천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학교에서 조사하는 장래 희망란에는 항상 스스로 '건축사' 라고 써놓곤 한다. 아들이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아주고 또 본인도 그 길을 따라 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데서 느끼는 든든함과 뿌듯함이 있고, 또 인간의 삶에 미치는 건축의 영향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며, 어느 직업보다도 사람에게 기여하는 바가 큰 직업이기에 원칙적으로 아들의 뜻에 동의한다.

그러나 또한 이처럼 척박한 한국의 설계시장의 현실과 한없이 추락하는 건축사들의 위상을 바라보면 마음속 한구석에서 아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 분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머뭇거리지는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가 겪어온 어려움을 아들이 또 겪게하고 싶지 않은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일감이 없어 폐업 아닌 폐업을 하고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는 무수한 건축사들, 사회적 경제적인 여유는 차치하고 가족들의 생계걱정을 해야 하는 수많은 소규모 사무소의 건축사들, 건축 설계를 단지 시공의 부수적인 일부분으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 건축사의 역량이 아닌 회사의 규모와 실적으로만 평가하여 능력있는 건축디자이너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BTL, Turn key 시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축소되어가는 건축사 고유의 업역 등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환경에 던져져 허우적거릴 우리 아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우리는 혹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조금 길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은 아니다. 필자가 학교를 다니던 80년도와 90년도에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선배의 모습은 지금의 그 모습과 많이 달랐다. 사회적인 지명도와 경제적인 여유, 건설사와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업무수행,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던, 그러한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해져버린 건축설계 환경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IMF 사태로 인한 건축시장의 위축이나 고도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등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 필자는 그렇지

건축설계 분야에서 거시적인 차원의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집단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집중하여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직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전에 비하여 기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짜는 역량도 많이 강화가 되었으며,  
정부 및 다른 단체들과의 관계 및 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세련되어 지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협회를 신뢰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다면 대한건축사협회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바꿀 수 있다.

않다고 본다.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업역을 넓혀나가고, 보다 나은 환경을 스스로 구축한 예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건축사와 연관된 분야에서도 감리, 도시계획, 건축물 관리, 디벨로퍼, CM, 리모델링 등 다양한 파생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으며,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갖게 된 단체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이에 따라 건축사의 영역은 점점 위축되어갔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건축사들이 설계와 감리라고 하는 전통적인 업무에 집착하여 사회적인 다양한 요구를 적절하게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축사법」이 보호해주는 독점적인 지위에 안주하여 경쟁을 회피하였으며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가 집단의 출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곧 존재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건축설계 분야에서 거시적인 차원의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집단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집중하여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직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건축계에 여러 단체가 존재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그 규모와 조직면에서 단연 독보적인 조직이다. 우리 협회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어떠한 조직도 이보다 더 효율적일 수 없다. 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회원의 참여와 호응이 협회의 힘의 근원이며, 이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협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회원들의 권익과 미래를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는 많은 건축사협회 임원진들을 볼 수 있다. 그들 중에는 본업을 제쳐두고 건축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임원들도 많다. 이전에 비하여 기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짜는 역량도 많이 강화가 되었으며, 정부 및 다른 단체들과의 관계 및 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세련되어 지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협회를 신뢰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다면 대한건축사협회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우리 아들이 훌륭한 건축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멋진 세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 ■